

2013. 10. 17

국제갤러리(주)

## 브라질·태국서 온 이색 전시회



갤러리 벽을 뚫은 전신주들

##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다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제갤러리 3관에 들어서면 매캐한 기름 냄새가 관람객을 맞는다. 길이 10m의 육중한 전신주 12개가 뿔어내는 자극적인 냄새다. 이 전신주들은 브라질의 설치작가 칼리토 카르발료사(54)가 상파울루에서 배로 실어 온 것들이다.

전신주 9개는 갤러리의 흰색 벽을 뚫고 설치됐다. 공간을 가로질러 전시관을 새롭게 재해석한다는 차원인데 갤러리 측은 개관 이후 처음인 남미 작가의 전시를 위해 전시관 안에 내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정성을 기울였다. 작품의 이름은 '살라 드 에스페라' (사진). 대기실이란 뜻으로, 상파울루 현대미술관의 개관 기념 작품으로 호평받았다.

작가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 이런 작업을 통해 건물과 그곳에 거주하는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려 했다고 한다. 전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열린다.